

충남 천주교 성지의 교황방문과 대응방안 워크숍

1. 토론회 주요내용

1) 김성태 신부

■ 교황의 방한 목적

- 합덕성당, 대전교구, 한국천주교의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며, 우리 구역 안에 교황님의 방문은 개인적으로도, 교구에서도 뜻 깊은 일임
- 교황님의 방문 및 아시아대회 유치에 처음 있는 일로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임
- 인원예측, 행사동선 등의 수정을 통해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
- 전문적인 식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내용이 잡혀지지 않는 않으며, 이러한 부문은 교구나 교회와 맥을 같이 함

■ 왜 행사가 충남(천주교 대전교구)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

- 청년대회를 천주교 대전교구를 선택하고 선정한 이유는 순교자들의 땅이기 때문이며, 사건과 인물이 이곳에 있었다는 점임
- 때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례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곳이기 때문에 가야된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임
-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, 정신적, 영성적 가치를 찾아서 온다는 것이 대단한 일임
-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가되어 청년대회가 개최되고,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황님이 방문하시는 것임
 - 또한 교황님의 방문은 1-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계획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예측하지 못한 일임
 - 교황님 방문기간은 공식적 업무가 없는 기간으로 교황청이 아닌 여름별장에서 업무를 구상하는 시기이며, 일정을 따로 뺄 수가 없어 휴가기간을 이용해 방문하심
- 교황님 방문의 선택의 중요한 이유는 순교자들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전달,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

■ 역사자료의 아카이브화

- 박해시대의 역사의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때로는 기존의 역사자료보다 더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의 자료 정리작업을 하였음
- 박해시대 이후의 박해의 연장선상에서 내포지역과 합덕, 당진지역은 신앙이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로서의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문들이 있음
- 역사적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해야만 과거의 순교자들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, 또는 교황, 대회를 만들 배경이 되듯이 이후에도 있었던 역사적 연구 및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
-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신적 사료 및 자료를 아카이브화하여 이번행사가 끝이 아닌 자료의 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

✓ 교황님의 방문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

✓ 대전교구의 유산의 가치의 중요성을 발굴하고 기록, 보존하는 부문의 지원 필요

2) 남광현 당진시 교황방문준비 TF

■ 행사준비

- 행사 준비를 함에 있어 행정, 도, 천주교 대전교구가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
- 당진시는 2시간의 행사, 일주일간의 청년대회 행사 및 행사준비는 어려울것 같지 않음

■ 천주교 역사에 대한 인식 필요

- 성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특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느끼고 있으며, 현상변경 하는데 불교쪽보다 훨씬 어려우며 천주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안되어있음
- 새로운 사상의 도래의 필요시기, 개화시기였음에 따라 천주교가 유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며,
- 솔피, 합덕성당, 공세리성당이 89년, 신리성지가 2009년에 문화재지정을 했는데 우리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임
- 2019년 세계대회에 교황님을 모시려 했는데 충남도도 준비가 안되었으며, 충남역사문화원에서 백제문화 연구는 하나 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없음

- 당진시에서 용역 발주를 통해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부님들이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으나 일반역사가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함
- 한국 천주교의 세계사적 의미, 내포지역의 순교자 발생 등 필연적 역사과정에 대해 전혀 연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준비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
- 수 없는 스토리, 관광부문이 이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
- 비신자들이 고딕건축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음에 따라 이에 스토리를 접목하여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

■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

- 인프라 확보를 위해 당진시에서는 164억원을 투입을 했고 국비2억, 충남과 당진이 50%를 투자함
- 관광쪽에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, 서산의 경우 해미성지는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있어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상태임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
- 관광부문에서 접근하여 합덕, 당진쪽에 하나의 구역을 설정해서 버그내순례길 중간기점에 합덕성당과 합덕제와 연계해 합덕청소년 유스호스텔의 숙박인프라를 구축함
- 성지는 모든사람의 교회이며, 성지에서 영성을 얻고자 많은 신자들이 일요일에 방문하고 있으나 삽교천이나 태안부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합덕주민들에게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며, 그 예로 솔피밥상을 판매하는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

■ 네트워크화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필요

- 버그내순례길은 보다 편안하고 많은 생각, 묵상을 하면서 걷도록 조성된 길로서 교황님 방문으로 인한 모든 순교길의 네트워크는 옳지 않은 방향임
 - 모든 성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지 모르나 신자들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다고 해서 순례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님
 - 주 코스는 탄생지→순교지로 이동하며, 1박이나 2박을 코스로 움직임
- 순례길의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우선시되기 보다는 내포지역의 새로운 사상에 대한 유입, 교우촌 조성 등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함

- 학술적 접근 이후 종합정비계획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종합데이터를 부문별로 분석을 해서 실행계획으로 제시되어야 함
- 2019년도 목표로 교황님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

■ 재원마련을 통한 계획

- 합덕버그내장터를 삼청동처럼 카톨릭화시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함
 - 합덕버그내장터는 다블뤼주교의 신부님이 종교를 보급하던 곳으로 길이라도 천주교 양식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객 및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
 - 천주교 순례길도 지원이 안됨에 따라 읍면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천주교를 테마로 하여 100억이 지원되었으며 순례길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
 -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성지순례길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쪽저쪽에서 국가재원을 끌어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식에 단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전과정들이 절실함

✓ 일반역사자원으로서의 연구 부족

✓ 교황방문의 선부른 준비는 향후 처리 문제의 어려움 발생[선택과 집중 필요]

3) 신현우 서산시 교황방문준비 TF

■ 성지의 문화재 지정 필요

- 해미성지는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지정이 안되어 있으며, 문화재의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(고도제한, 재산권 침해 등)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있지 않음
- 교황방문을 계기로 주민과의 협력, 대화를 통한 문화재 지정이 필요

■ 방문지 명소화 사업 필요

-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한 관광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
-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소화 사업이 필요하며, 교황님이 방문하신 곳, 음식, 식기, 필기구, 쉬었다 간 자리 등의 기념화
- 현재는 현장중심의 행사준비의 몰두하다보니 정부, 충남도, 서산시는 기념화 사업, 명소화 사업은 장기과제로 단정하여 소홀하거나 배제되어있는 입장임
- 기념화나 명소화를 건너뛰고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

- 천주교쪽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교황님이 오신 자리에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
 - 일반기념관이 아닌, 숙박, 컨벤션,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나 정부에 인프라시설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
- 기념화, 명소화에 관심을 갖어야 교황방문 이후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임

✓ 교황방문 이후 명소화, 기념화를 위한 의미 발굴 및 자원화 방안 논의 필요

4) 이준호 서산문화원장

■ 주민참여기회 확대

- 워크숍을 공주가 아닌 서산이나 당진에서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며, 종교인들의 행사가 아닌 문화적 행사로 접근하여야 함
-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

■ 안전과 편의

- 교황방문 행사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문화적 행사로 접근하여야 함
- “교황님의 성향이 검소한쪽으로 흐르다 보면 국제적 행사가 격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제적 행사에 걸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
- 안전과 편의는 예산문제임
 - 해미읍성에 10 만명이 운집할 경우 해미면소재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문제의 접근 필요
- 교황방문으로 인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해야함

✓ 행사에서 중요한 인원예측과 안전의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

✓ 국제수준에 걸맞는 안전과 편의 제공 방안

✓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

5) 최천재 충청남도 교황방문준비 TF 팀장

■ 충남 준비상황

- 3월 10일 : 교황방문 공식적 발표
- 3월 11일 : 정부차원의 대응, 총리주관 [교황방문 정부지원회] 구성
 -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음. 위원 : 시도지사
 - 세부적인 프로그램 준비 미비를 이유로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음
 -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지원의 뒷받침이 어려움
 -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행사주관을 하며, 도, 서산시 및 당진시는 행사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
 - 충청남도, 경찰청, 교육청,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
- 3월 17일 : 교황방문준비 TF팀 구성
 - 주관 : 도청 문화예술과 내 팀장1인, 팀원 1인
 - 실시부서 6개팀으로 총괄팀, 의전안내팀, 소방보건팀, 환경, 도로 및 교통대책, 홍보팀으로 구성하여 실무팀이 추진
 - 충청남도 : 아시아청년대회 6천명 + ∞로 안전관리에 중점, 성지순례길 등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내방객 편의시설 확보[주차장, 이동식 화장실], 교황에 대한 영접 및 환영분위기 조성(당진, 서산시에서 현장에서 준비, 도에서는 시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)
 - 경찰청 : 도로 및 안전대책
 - 교육청 : 행사장주변 학교시설 정비
- 3월 17일 이후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대책을 마련 : 676억
 - 중앙부처의 재원확보를 위한 준비 및 논리개발 필요
 - 213억이 우선적으로 필요 금액 확정
 - 482억 연차적 필요, 재원대책 수립
 - 국비부문 교부세 108억 신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확보는 어려울 것임(1차 : 30억(서산, 당진 50%씩), 2차적으로 신청할 예정)
- 행정부문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, 성지주변의 지역공동체와 상생발전방안이 필요
 - 교황방문 이후 성지주변의 내방객 증가 예상에 따른 천주교, 지역주민, 지역공동체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모임 개최(5.2) 및 정례적 모임 개최

- 지역주민들의 자체역량 부족으로, 충청남도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계획
- 지역공동체가 읍면개발사업 등의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
강구(상생발전의 샘플)
- 교황방문이후 성지명소화사업을 양 시에서 아이템을 갖고 있어 국비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할 것
- 교회, 지역공동체와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자생적,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
-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례길 정비 등의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

✓ 행사준비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

6) 원내연구진

■ 연구실장

- 종교적 행사를 뛰어넘어 문화적 행사로 추진하여야 함
 - 종교에 대한 폐쇄성을 뛰어넘어 종교행사라기 보다는 문화의 행사로 갈수 있어야 할 것임
- 해미읍성, 솔피성지 등의 공간 협소 문제에 대한 안전대책, 교황님 경호문제 및 수용능력에 대한 사전설정 필요
- 충남지역의 순교자의 땅, 순례자의 길로서 외국의 산티아고 길의 벤치마킹을 통해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

■ 김경태박사

- 충남 지역에 다수의 성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임
-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종교적, 역사적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
- 지역이 가진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함

■ 박경철박사

- 국내의 성지의 방문뿐만 아니라. 김대건 신부님이 공부한 중국지역과 또한 중국의 천주교 성도는 1억명이 있다고 전해짐에 따라 사제 초청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아이템발굴이 필요

■ 최영화박사

- 교황이 2019년 방문 예정이었는데 2014년에 급히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

- 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음
- 3개월 남짓 남은 동안에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며, 교황방문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천주교라는 평등, 포용, 저항, 서민 이미지를 충남의 이미지화 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함
 - 교황이 충남방문의 문화적,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

6) 충남발전연구원 원장

- 천주교 행사를 넘어선 국가적, 문화적 행사로서 충남도, 서산시, 당진시,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잘 준비해야 할 것임
- 구체적으로 당일행사준비, 지속행사 준비 등이 있을 것이며, 연구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살리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며, 교황방문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화 할 것임
- 교황님이 충남에 오시는 목적의 의미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